대 한 국 제 법 학 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수신 : 대한국제법학회 회원님

제목 : 소병천 학회장 취임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취임 인사말

존경하는 대한국제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대한국제법학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책임질 아주대학교 소병천입니다. 힘차게 약동하는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73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 취임 인사로 드린 말씀을 가다듬어 회원님들께 올해 운영 방향 및 주요 일정을 메일로 드립니다. 저는 학회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서 모든 회원들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전통과 가치는 유지하되 그 운영의 방식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첫째, 미래 세대, 젊은 신진 세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회장님들 취임사를 살펴보니 몇 가지 공통되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위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위기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붕괴라는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국제법 지위에 대한 위기도 있지만 국제법을 연구하는 젊은 신진 세대들이 감소로 인한 국제법 학문 그리고 학계 자체에 대한 위기입니다. 저는 위기를 결코 가벼이 보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1년이라는 집행부 임기 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이번 집행부는 제도적 차원에서 젊은 신진

세대들이 맘껏 활약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관에는 학술분과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젊은 신진세대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신진학자대회에서 발표한 회원 그리고 외교부의 국제법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한 논문경연대회, 모의재판대회 등의 참가자들을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정하고 위원장도 내부에서 선출하며 특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논의하여 집행부에 요청하면 집행부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역대 회장님들이 적립하여 두신 기금도 상임이사회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풀어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학회 회원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연구자 중심에서 변호사 등 실무자들도 적극적으로 학회 회원으로 영입하고 필요하다면 총회 개최를 통해 이사진에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학문과 실무, 이론과 정책의 교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외교원, 주요 법무법인 등과 함께 젊은 학자, 변호사뿐 아니라 중견 학자들과 중견 변호사들이 경륜과 혜안을 나누고 미래의 대한민국과 국제규범을 논의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예이사님들 포함 모든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저와 함께 학회 업무를 집행할 집행부를 소개합니다. 지난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서울대 이재민 원장님을 수석부회장으로 하여 경희대 백범석 교수님, 동아대 이진규 교수님이 부회장단으로 활동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무이사 연세대 김현정 교수님, 연구이사 가톨릭대학 이동은 교수님, 출판이사 영남대 박미경 박사님, 국제이사 국립외교원 서영민 교수님, 기획이사 고려대 임예준 교수님, 학술이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조훈 박사님 마지막으로 사무국장에 작년에 이어 전서진 국장님이 봉직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구성원의 활동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올 한해 학회 주요 일정을 공유드립니다. 학회가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온 신진학자대회는 3월 20일 경희대학교에서 그리

고 국제법학자대회는 인권, 환경, 평화를 대주제로 10월 16일, 17일 양일 간 아주대학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인권, 환경, 평화라는 대주제는 21세기 4분의 1일 지난 2026년 또 다른 4분의 1, 아니 더 나아가 2100년의 국제법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으로 풀어나가고 1일차 전체 세션뿐 아니라 분과 세션도 해당 주제에 맞춰 발표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님들도 본인 연구 분야에 인권, 환경, 평화라는 대주제를 접목하여 남은 21세기 국제법의 역할과 미래는 무엇인지 주제 발표 신청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2월 Jessup Moot Court National Round, 8월 외교부 모의재판 및 논문경연대회, 11월 국제해양법학술대회 및 국제인도법 세미나, 독도 센터 학술회의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6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6. 1. 8.

대한국제법학회 제53대 회장 소병천